

'상전벽해' ... 불모지가 거대한 숲으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혼자 힘으로 불모의 땅을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 더 큰 숲으로 만든 남성이 화제이다.

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인도 아삼주 마주리섬은 1970년대에 불어닥친 거대 홍수와 가뭄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야다브 파영(55, 왼쪽아래 사진)이 16살 때였다. 파영은 자연재해로 숲이 사라지고 야생동물이 메말라 죽는 광경을 보며 정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파괴된 땅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파영은 결국 혼자서라도 매일 나무를 심기로 했다. 그렇게 39년째 나무 심기를 한 결과 현재 약 1,360에이커에 달하는 숲이 조성됐다. 이 숲은 벵골 호랑이와 코뿔소, 독수리, 그리고 100여 마리가 넘는 코끼리의 서식지가 됐다.

그의 노고를 처음 보도한 사진기자 지투 칼리타는 "브라마푸트라강 주위의 새



들 사진을 찍기 위해 보트 한 척을 빌려 마주리 섬까지 이동했다. 저 멀리 숲 같은 것이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 척박한 황무지 중심에 울창한 숲이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칼리타의 기사로 인해 파영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 자연재해로 황폐해진 불모지(위 사진)가 울창한 숲(아래 사진)이 되었다.

알려졌고, 그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포레스트 맨'은 유튜브에서만 28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2015년 인도 정부는 '연식장' (Padma Shri)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밀렵꾼과 불법 벌목꾼의 위협이 걱정인 파영은 "사람들은 아무 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소비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환경은 야생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숲을 가꾸는데 일생을 바쳤지만 아직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며 "내 꿈은 마주리 섬을 약 612만평의 숲으로 채우는 거다. 마지막 숲을 거둬들 때까지 묘목과 씨앗 심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 온 이웃이 30년 전 헤어진 친언니

30년 전 헤어진 자매가 극적으로 상봉했다.

1일 CBS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에 사는 헤리슨 씨와 그의 언니 존슨은 태어나자마자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그렇게 23년이 지났을 즈음 결혼을 앞둔 헤리슨 씨는 친부모를 만나 대화하면서 언니의 존재를 알게 됐다. 친부모로부터 들은 언니에 대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그린우드란 곳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고, 그 마을 옥수수 수확 축제에서 퀸으로 선정됐다는 것, 그리고 언니 이름이 다윈 존슨이란 것이었다.



▲ 30년만에 이웃이 되어 다시 만난 언니 존슨(위 사진) 큰쪽과 동생 헤리슨. 두가족이 함께 모였다(아래 사진)

언니의 존재를 알게 된 헤리슨 씨는 언니를 찾기 위해 수시로 각종 소셜 미디어(SNS)를 검색했다. 그렇게 또 7년이 흐른 지난 2017년 여름, 어느 날 옆집에 한 부부가 이사 왔다. 처음 헤리슨 씨는 이웃집 여성과 얼굴이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며 지냈다. 반면 그의 남편은 이웃과 담장 너머로 대화를 이어왔고, 이웃집 여성이 그린우드에서 살았다는 것과 이름이 다윈이라는 걸 알게 됐다.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헤리슨 씨는 이웃집 택배 상자에 '존슨'이라는 글을 보고 마침내 친언니라고 확

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30년 전 헤어진 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옆집에 30년 간 떨어져 지낸 가족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우연이 아닌 운명이 길을 이끌어 다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가족을 찾는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헤어진 가족이 어찌면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수리함

부에나팍/플러튼/라하브라/애나하임

한미 자동차 바디/수리



Hanmi Auto Enterprise Collision & Repair

저렴한 가격 / 정확한 수리

-해병전우 환영-

- Towing & Rent Car 알선
- 보험 수리 전문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FREE ESTIMATE



< 미국내 많은 메이저 보험 클레임 >

Cell 714.851.7556 4355 Artesia #B, Fullerton, CA 92833
714.680.9273 Dale + Artesia 플러튼 공항 뒤쪽(활주로)